

인터뷰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목표로, 강채영의 골든 스토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강채영(스포츠키도학 2015) 선수가 또 다시 해냈다. 20살, 어린 나이에 ‘2015년 WA 제1차 월드컵 대회’ 2관왕(개인전, 단체전)을 달성하고 2년 뒤엔 ‘2017 현대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단체전, 혼성전)을 달성했다. 지난해 우리신문과의 인터뷰(경희대 신궁의 시작은 ‘멋있어 보여서’/대학주보 제1628호, 2017.11.2)에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목표라고 당당히 말한 강 선수는 지난달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말은 유명하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국가대표 4명은 아시안게임 예선에서도 경쟁을 이어간다. 국내 선발전 점수와 예선 점수를 계산해 1위는 개인전과 혼성전, 단체전에, 2위는 개인전과 단체전, 3위는 단체전만 출전한다. 4위는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다. 국내 선발전 3위였던 강 선수는 아시안게임 예선 성적으로 팀 내 2위를 기록해 개인전과 단체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대회 이전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린 것이 예선전 좋은 점수의 비결인 것 같다”는 강 선수는 예선전에서 대회 기록을 세웠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7점을 쏜 것이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예선전을 1위로 통과한 강 선수였지만 그녀에게 개인전 금메달은 허락되지 않았다. 4강에서 만난 중국의 장시난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4-6으로 패배한 것이다.

대표팀 만만치 않겠다. LH스포츠단 선수의 8강 탈락이 큰 부담이었다. 강 선수는 “8강에서 헤진 언니가 탈락하고 내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팀 순위 3위로 밀려난 이은경(순천시청) 선수의 뒷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다고 한다. 그래서였지만 강 선수는 식사 시간에도 오직 경기 생각 뿐이었다고 한다.

동메달 결정전도 순탄하진 않았다. 양궁 개인전은 세트제로 진행된다. 한 세트에 각 선수가 3발씩 쏘고 상대 선수보다 점수가 높으면 승점 2점, 같으면 1점, 낮으면 0점을 세트스코어로 가져간다. 총점 6점을 먼저



그랜드슬램이 목표라는 강채영 선수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년 뒤 올림픽을 준비한다.

얻으면 승리한다. 강 선수는 1세트에서 승점 2점을 가져왔지만 2, 3세트를 내리 내주게 됐다. 하지만 강 선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전까지도 여러 상황을 생각하며 훈련했고, 그냥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며 승리의 비결을 말했다. 4, 5세트 6발을 연속으로 10점에 명중시킨 강 선수는 금메달보다 빛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쉽지만 아쩔 수 없었다. 4강에서 탈락한 후 자괴감을 느꼈다는 강 선수는 “동메달을 따긴 했지만 많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전하며 “마지막 경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시련은 개인전 준결승 탈락, 딱 거기까지였다. 개인전 이후 열린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 선수는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6연패 금자탑을

세운 국가대표팀의 중심에 강 선수가 있었다. 개인전 준결승 탈락으로 흔들렸을 법도 하지만 강 선수는 그러지 않았다. “지난 경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경기에 초점을 맞췄고, 지나간 결과에 좌절하면 남은 경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강 선수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이 마음이 더 편했고 자신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여자 단체전 결승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다. 마지막 세트에서 대만을 한 점차로 이기며 금메달을 확정할 순간, 강 선수는 “올해 연습하면서 고생했던 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기뻔하고 감격스러웠다”며 당시 소감을 말했다. 강 선수는 “눈물이 날 뻔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다”라며 웃었다. 집대나 생활 물품도 열악했고 식사도 부실했다고 한다. 더욱이 올해 한국의 더위만큼이나 뜨거웠던 자카르타의 더위를 극복하고 얻어낸 금메달인



(사진=마이데일리 제공)

만큼 더욱 귀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만큼, 학교 안에서 강 선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한다. “알아보는 학생도 있고 사인해 달라는 학생들도 있다”며 “사인을 해주긴 하는데 아직은 부끄럽다”며 웃는 모습에서 활을 쏠 때의 매서움과 다르게 아직한 어린 대학생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강 선수에게 첫 아시안게임이자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다. 그런 만큼 의미도 남달랐다. “월드컵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와 다르게 종합대회였고 그런 큰 대회를 경험해 보는 것이 의미 있었다”는 강 선수는 “우리학교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강 선수는 매 대회마다 체스트(가슴보호대)에 우리학교 마크를 붙이고 출전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강 선수는 ‘경험’이라는 열매를 맛봤지만 한편으로는 만

만치 않게 성장한 세계 양궁의 상향평준화를 느꼈다. ‘메달 밭’이었던 과거 양궁 대회와 다르게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석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 선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계셨던 지도자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경기할 때 예전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상대팀 선수들의 경험 축적을 꼽았다. 하지만 강 선수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팀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선수는 이제 2년 뒤 열릴 2020 도쿄 올림픽을 조준한다. “우선 내년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고, 2년 뒤 올림픽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강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발판으로 다음 올림픽 때는 발전한 강채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대회 일정은 없지만 강 선수는 오는 10월, 다시 경희대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항상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강 선수는 감독님과 학생들에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강 선수는 우리학교 양궁부를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양궁장 시설이 열악해서 장마철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도 한다”며 “저는 곧 졸업하지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궁부에 감독님 외에 코치님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랜드슬램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강 선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선수는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만족한다는 것은 곧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올림픽 3관왕을 이루고 그랜드슬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선수는 대한민국 양궁의 세대교체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로 평가받는다. 대학 1등, 대한민국 1등,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 1등이 될 강 선수의 선수 생활을 응원한다.

철학하는 물리학자 김상욱의 메시지, “과학은 교양이다”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즐거웠다.” 화제를 모았던 ‘알쓸신잡3’에 출연하는 김상욱(물리학) 교수의 촬영 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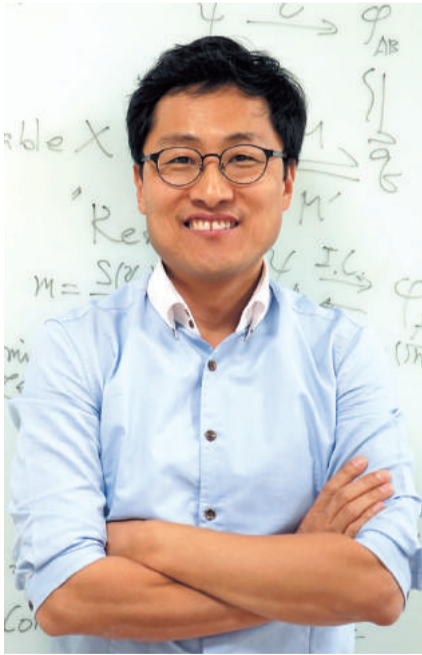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교양’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있다.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교양으로 여겨짐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떠한가? 김 교수는 “과학도 교양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물리학은 직업이자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김 교수는 여느 1등 학생들처럼 판·검사를 꿈꿨다. 그러나 우연히 접한 〈양자역학〉이라는 책은 김 교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 교수는 이를 몇 십번 읽으면서 “나는 평생 양자역학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양자역학〉은 허무한 책이었다”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책을 보고 인생을 결정했나 싶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시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자타공인 ‘철학하는 물리학자’로 통한다. “물리학자는 온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며 “우주를 논하다 보면 자동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길이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를 인문학자라고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부산대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양자정보 연료 엔진’을 최초로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연구와 강의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과학전도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김상욱의 과학공부〉, 〈과학수다1·2〉, 〈김상욱의 양자공부〉등의 저서들이 그것이다. 그의 책은 여느 딱딱한 과학책과는 달리 일상적인 언어와 유머로 어려운 내용들을 자연스레 녹인다. 그래서인지 김 교수는 책 전문가 46인이 선정한 ‘2016년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하는 물리학자’라는 그의 별명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에게 주어진 훈장인 셈이다. 김 교수는 인문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움직이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문학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문학이 구성원들의 합의와 그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과학은 합의에 최소한의



것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소 수입 사건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학자를 향했다.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요?”에 대한 과학적 답을 원하는 시선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면 백만분의 일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답의 전부라고 말했다. 광우병 소 수입 여부는 인문학의 몫인 셈이다. 이에 김 교수는 “대부분의 문제는 중간에 있지만 양쪽 극단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인문학의 영역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교양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교양은 앞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 이끄는 모든 지식”이라며 “과학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양과목처럼 성찰을 돕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 교수는 세포를 ‘레고블럭’에 비유했다. “조립이 자유로운 레고처럼 세포를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인간이 되고 저렇게 조립하면 바퀴벌레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어느 생명체가 더 우월한지는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김 교수는 “과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해 행동을 변화시켰다”며 과학 역시 교양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김 교수의 바람에도 물리학, 즉 과학은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이다. 특히 문헌이나 역사와 달리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것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학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업은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며 과학 학습의 당위성을 깨닫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학기에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계해 개설한 ‘모두를 위한 물리학’이라는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목표는 모든 타 전공 학생들이 물리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에 대해 “소설을 읽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면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이 그러한 학문이기를 바라면서 만든 강의”라고 말했다. 인터스텔라를 비롯한 SF 영화와 인문학적 비유를 사용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는 김 교수는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의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가 출연하는 ‘알쓸신잡3’는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공부와 연구에 힘을 쏟아 과학지식 전달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